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장 Antonina Dashkina 보수교육 의무화 위한 활동전개

| 글 : 이혁준 객원기자



RUSUNISW는 1991년 설립된 러시아에 있는 단 하나의 사회복지조직으로서 현재 11,000여 명의 회원과 8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월간 Social Worker 11월호에서는 Antonina Dashkina 러시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만나 러시아 사회복지사·사회복지계 동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회장님을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회장님과 러시아사회복지사협회(이하 RUSUNISW)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RUSUNISW는 1991년 러시아 사회복지사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설립되었다. 러시아에 있는 단 하나의 사회복지조직으로서, IFSW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협회 회원은 11,000여 명이고 러시아내에 8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RUSUNISW는 지난 15년 동안,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NGO들과의 공동협력관계를 맺어 일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계층과 제반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통해 그에 알맞은 적절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RUSUNISW를 이끌어가면서 주안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일을 하시는데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RUSUNISW의 주안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위와 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로인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제시와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끼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배워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직업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 사회응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전에 RUSUNISW는 러시아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공동협력관계를 맺고 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2002년에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에 대한 협력을 위해 러시아 사회개발부, 노동부와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사회복지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부서가 소멸하여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RUSUNISW의 이사회는 예전부서에 있었던 28명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3명의 핵심적인 멤버를 영입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우리는 사회 서비스를 공급중인 다른 기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예전부서에서 온 3명의 핵심적인 멤버들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의 멤버들, 지역 유지, 사회 서비스 부서들의 장, 또한 학계와 지방협회사회복지사들과 NGO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RUSUNISW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수준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의 50%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급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임금이 높은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은 낮아지고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 개발과 현재 사회복지 조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어려움은 러시아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현재 전문성에 관한 문제들, 학문적 문제들, 사회복지사들의 불만들을 대변해주는 대표기구가 없다. 그로 인하여 RUSUNISW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조언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기초를 둔 advice와 Representation 서비스를 시도하는 중이다.

RUSUNISW는 2006년 11월 29-30일 열릴 예정인 사회복지사 학술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의 목표는 집권자들에게 현재 러시아 사회복지 개발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사회복지사 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열악한 임금과 근무조건 때문에 젊은 사회복지졸업생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파키스탄 구호활동에 대해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고 멤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러시아 사회복지사들은 RUSUNISW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사회복지사들 간에 홀로 고립되어 일하지 않게 해준다고 말한다. 분기별 출판물인 'Social Work'를 통해 RUSUNISW은 러시아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매거진은 89개지부중에 87개지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RUSUNISW는 이 매거진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성 증진, 사회복지사의 지위에 대한 개선, 2003년 선포한 윤리강령을 토대로 사회적 결합을 증진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둘째, RUSUNISW의 멤버들은 재난관리, 사회적 결합, 소외된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국제적인 프로젝트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멤버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사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나 지지망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입법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실시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RUSUNISW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훈련을 위해 62개의 대학

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 80여 곳에서 보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보수 교육 시설은 국내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점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러시아내에서 직업을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개발이 필요하며 보수교육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RUSUNISW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해 끊임없이 입법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RUSUNISW는 사회복지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현재 임금을 본다면 그들은 거의 자원봉사자에 가깝다고 본다. 러시아의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지만 슬프게도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조건과 급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RUSUNISW는 끊임없이 social work 출판물과, 방송매체 그리고 입법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RUSUNISW의 대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다른 나라들과 협력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RUSUNISW는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협회들과 매우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영국사회복지사협회(BASW)와의 관계가 긴밀한데 1991년 RUSUNISW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BASW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IFSW와도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사회복지 구조와 발전방향들을 함께 검토하고 상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2004년에 RUSUNISW는 NASW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서명했으며 해외 프로젝트와 실천영역 개발과 사회복지 발달을 위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RUSUNISW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들과 Kemerovo의 Siberia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교육자대회에도 참석하여 양 협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기도 하였다. 